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접속 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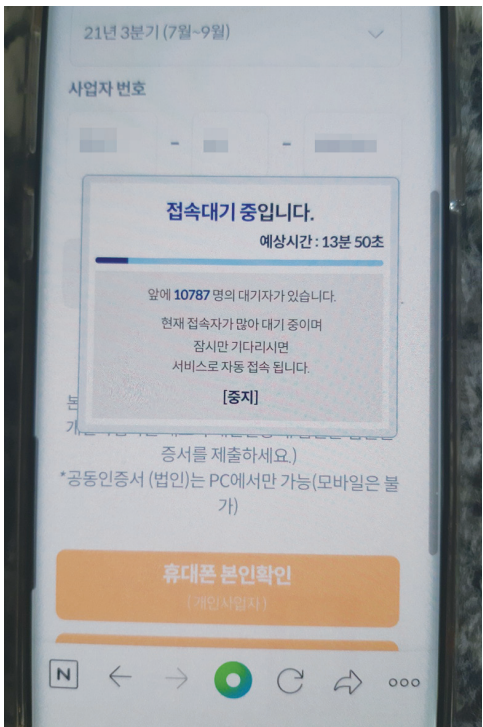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오전 8시부터 몰려 화면 지연
소상공인 영업에도 지장 ‘불만’

복정권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접속이 마비되는 등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8시부터 사업자번호 출력제로 시작된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은 먹통이 되다가 단계별 화면이 마비되는 접속 장애가 오후까지 계속됐다.

신청 단계는 첫 화면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조회’부터 마비됐다. 접속대기중 예상시간이 15분 이상, 대기자는 수만명에 달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동통신사 선택’ 후 ‘본인인증’ 화면도 마비는 여전했다. 오후에 접어들자 마지막 신청제출 화면인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및 제출’ 화면에서는 아예 클릭이 되지 않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영희씨(52)는 “보상금을 받는다는 들뜬 마음에 아침부터 신청을 시도했지만 전혀 화면이 전환되지



않았다”면서 “영업시간에도 신청을 하기 위해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내뿜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강효씨(58)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지만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운영 테스트를 통해 마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번호 출력제 신청은 손실보상제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된 직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거의 하루 종일 접속 장애로 인해 신청이 지연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올해 전국적으로 3분기(7~9월)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첫 4일간 출력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이날과 29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는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출력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 적극 협력

전주시·사회적경제조직, 탄소중립 협력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동참한다.

전주시는 27일 이수홍 전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창승 전주시자활기업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위기 확산,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냉·난방 효율 높이기 △전자기기 사용 시 전력소비 최소화하기 △저탄소 인증제품 및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행동에 협력키

로 했다. 향후 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구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유관 단체들을 비롯해 기독교·원불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과 릴레이 협약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북은행 및 농협 5개소 등 금융계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자 인프라 구축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 금리우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또 시청사 인근 카페 18개소와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맺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도 벌이고 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선미촌 문화재생, 도시재생 최우수상 수상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서 도시재생 일반지 입증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인정 받으면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일반지임을 입증했다.

시는 27일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열린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에서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출된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도시재생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60년 가까이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거점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과 찻마중길 조성, 도시재생 뉴딜 등 전주형 문화재생사업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도시재생 일반지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돌입한 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폐·공가 매입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을 확보해 △물결서사(예술책방) △시티가든(휴식공간)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 △새활용센터 다시봄 △뚝딱의 미술관(예술작품 전시관 △놀라운 예술터 △노송니우스박물관(마을사 박물관) 등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의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어두운 가로환경을 개선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공목길 정비 △도로 곡선화·인도 설치 △가로수 식재 등을 진행해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와 동시에 시는 선미촌 내 빈 업소를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들을 위한 팝업스토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696번가 프로젝트, 예술몽당 작품 등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0년대 초반 85곳에 달했던 성매매업소는 현재 사실상 영업 중단돼 전국 최초로 성매매업소의 자진폐쇄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바꾼 힘은 여성인권의 관점, 문화예술의 힘, 주민과의 연대가 핵심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인권을 예술을 주제로 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노송예술촌2.0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

jjnh.nonghyup.com

창간21주년 기념

농민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드리는 **전주농협!!!**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농산물 최고 !!

농민과 도시의 상생정신을 지키는 — **전주농업협동조합**
☎ 063) 287-8111



전북대 화학공학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우수’

민지호 부장 “학부 구성원 노고 인정받아… 앞으로도 융합인재양성에 최선”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가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실시한 ‘2021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대학 교육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4년을 주기로 진행된다. 전북대 화학공학부는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전국 47개 대학 86개 학과를 대상으로 한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30%), 교육과정 운영(50%), 교육과정 운영 성과(20%)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와 관련 전북대 화학공학부는 나노화학공학, 생명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의 세부 전공별로 특

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화학공학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

또 기업 현장 견학을 비롯해 CEO 및 전문가 초청 특강, 전공 맞춤형 취업캠프, 화공기사 자격증반 운영 등 학생들의 실무역량과 전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정유·화공 산업의 현장 적응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형 주제로 오랜기간 실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민지호 전북대 화학공학부장은 “학문적 기초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한 학부 구성원들의 노고를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융합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